

<표> '11년 1분기 vs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업체(상장사) 비교

(단위 : 억원)

구분		2011년 1분기	2012년 1분기	1분기 전년동기
매출액*	콘텐츠업체(상장사)	42,622.60	49,594.30	16.36%
	전체상장사 <sup>1)</sup>	2,648,964.00	2,914,959.00	10.04%
	비중	1.61%	1.70%	0.09%p
영업이익**	콘텐츠업체(상장사)	7,571.80	7,226.70	△4.56%
	전체상장사	191,826.00	161,824.00	△15.64%
	비중	3.95%	4.47%	0.52%
영업이익률***	콘텐츠업체(상장사)	17.76%	14.57%	△3.19%p
	전체상장사	7.24%	5.55%	△1.69%p

\*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말함  
 \*\*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는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. 즉,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함(영업이익 = 매출액 - 매출원가 - (관리비+판매비))  
 \*\*\*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며,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냄

-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약 1.70%로 전년동기대비 약간 증가했으며,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매출액은 '11년 1분기 이후 두 자릿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'12년 1분기에도 이어짐. 영업이익은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와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는 모두 감소했으나,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은(콘텐츠산업 -4.56% vs 전체상장사 -15.64%) 양상을 보임
-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 매출액 중 콘텐츠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1.70%로 전년동기대비 0.09%p 증가
  - ※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.04% 증가했으며 이는 '09년 미국발 금융이후 '10년부터 시작된 경기상승과 함께 자동차, 반도체 등 국내 수출주력상품을 생산·판매하는 대기업들의 실적호조에 기인. 향후 유럽금융위기 등 대외약재 해소여부 및 이에 연관된 국내경기의 향방이 전체상장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-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중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의 영업이익

1) 전체 상장사 데이터는 2012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668사 중 분석제외법인 33개사를 제외한 635개사 대상 개별(별도) 재무제표 기준으로 추계됨(출처 : 2012년 5월 보도자료, 한국거래소 www.krx.co.kr)

- 비중은 약 4.47%로 '11년 4분기에 이어 매출액 비중에 비해 높은 수준
- ※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5.64% 감소한데 반해,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의 영업이익은 4.56% 감소하는데 그쳐, 전년동기대비 비중은 약 0.52%p 증가
  -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'12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전체 상장사에 비해 약 2.6배 정도 높은 약 14.57% 기록
  - 콘텐츠업체의 영업이익률은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3.19%p 감소
  - ※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.69%p 감소